

SK, 2005년 매출 20조원 넘본다!

상반기 9조9456억원에 하반기 가격인상 지속 ... 영업이익은 감소

국내 최대의 정유기업인 SK가 2005년 매출 20조원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에 매출 9조9456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연말까지 총 매출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004년 매출 20조원을 넘긴 국내기업은 삼성전자(57조6323억원), 현대자동차(27조4724억원), LG전자(24조6593억원)와 한전(23조5999억원) 4사에 불과했다.

SK는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출 20조원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에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7조9천53억원)보다 1조4754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의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도 매출 20조원 달성에 일조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영업이익은 2004년 수준에 미치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했기 때문으로 사상 최대수준인 2004년(1조6163억원) 수준을 뛰어넘기는 무리로 판단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12>